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인 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탐색

202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 나 래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탐색

황 인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 나 래

인 준 서

최나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2.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2020년 5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소재의 직장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아반과 유아반에서의 운영지침이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마다 각 2회씩, 총 20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연구 자료는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한 면담 전사본, 연구자 노트,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문서 등을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심층 면담, 문서 수집, 연구자의 현장노트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작업 및 유아교육 전문가와

의 주기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앞두고 정부기관 주도의 어린이집 평가제 집합교육이나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었으며 소그룹 교사교육이나 원내 장학 등, 교사들의 협력적 교육방법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필수지표로 강조되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평가 지표에 관심을 갖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 역할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전반에 걸쳐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며 그 과정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자율적인 보육운영을 통한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을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 역할의 효능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경험을 하며 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보육교사의 평가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강조하는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보육교사의 상황을 되돌아보기도 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과 운영방향의 개정 취지대로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이후

의 사후관리 강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평가를 기대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평가방식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과정에 보육교사의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고 보육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서류의 간소화, 현장평가에서의 교사 면담기회 확대, 평가지표의 ‘교직원’영역에서의 교사 익명성 보장 등, 평가방식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중심 보육과정 이해교육, 영유아 중심 상호작용에 대한 우수사례 중심의 교사교육,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평가지표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현장평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자체점검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조력기관에서의 지원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지원 요청 연결이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력을 수월하게 받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자	5
4. 용어의 정리	7
II. 이론적 배경	8
1. 어린이집 평가제	8
1)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배경	8
2) 어린이집 평가제 목적	10
3) 어린이집 평가제 주요 내용 및 평가지표의 특징	11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13
3. 선행연구	16
III. 연구방법	22
1. 연구 참여자	22
2. 연구 절차	33
1) 예비연구	33
2) 본 연구	34
3. 자료 분석	38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43

IV. 연구 결과 및 해석	44
1.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44
1)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44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천과 보람	48
3) 교수학습의 자율성이 실현되는 평가	54
4) 개선되지 못하는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	59
2.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	63
1) 어린이집 평가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63
2)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68
3)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실천을 위한 교사역할 지원	74
4)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78
V. 논의 및 결론	84
1. 논의	84
2. 결론 및 제언	9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1>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주요 내용 비교	11
<표2> 연구 참여자 일반적 배경	23
<표3>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35
<표4> 심층면담 질문 범주 및 내용	37
<표5> 수집된 자료	38
<표6>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6단계	39
<표7>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3세 이후 유아의 90% 이상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0~2세 영아의 경우에도 전체 영아의 5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국가차원에서 어린이집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김은설, 박창현, 황선영, 윤지연, 2019).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는 2006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되었고 이후 2010년부터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었다. 2014년 제3차 평가인증 개정작업이 시작되었지만, 2014년 말 유보통합 추진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평가체계가 추진됨으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시범지표와 제2차 지표가 함께 시행되었고, 이후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한국보육진흥원, 2018).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시행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나 미 인증 어린이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미 인증기관은 전체 39,219개소 어린이집 중 19.2%에 해당되는 7,521개소로 조사

되었다(한국보육진흥원, 2019).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미 인증 어린이집의 문제와 함께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도조차도 다양한 운영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면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여 상시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한국보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 유지와 관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질 관리가 실현되고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보육재정 집행에도 기여하였다(류혜영, 2019).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며 보육의 질적 수준 확보에 기여하는 가운데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보육교직원들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교수학습방법,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보육과정 평가 등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권윤미, 2019).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보육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희정, 2012). 또한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보살피고 교육하면서 동시에 평가인증을 준비해야하는데서 오는 시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김영은, 2017). 이처럼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준비하며 겪는 보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육교사가 체감하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과중한 업무는 평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류혜영, 2019).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은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강혜정, 2018).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제의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가의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백진희, 2020).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평가제 실행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이미화, 박원순, 염혜경, 2019). 특히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평가제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 실행 이후 어린이집 평가제와 보육교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및 요구를 탐색한 연구(강진실, 2020; 류혜영, 2019; 백진희, 2020; 한지현, 한영숙, 2020), 어린이집 평가제에서의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탐색한 연구(진은영, 이경화, 2020),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김은정, 2020; 임정은, 2020), 어린이집 평가에서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탐색한 연구(이현미, 2020)등이 수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진실(2020)은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류혜영(2019)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추구하는 보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진희(2019)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보육교사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하였으며, 한지현, 한영

숙(2020)은 영유아와의 권리존중을 위한 상호작용 방법 등, 보육교사들에게 실제적인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탐색한 연구로 진은영, 이경화(2020)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 경험을 다룬 18편 질적 연구의 메타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정책 연구가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김은정(2020)은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이나 근무경력이 교사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임정은(2020)은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현미(2020)는 어린이집 평가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 및 전문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해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표면적인 결과를 살펴보는 양적연구로 수행되어 보육교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주요 주체자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과정에서의 경험과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과정을 현장감 있게 이해하고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을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2.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는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년,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주임교사로 5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차 평가인증과 3차 평가인증에 참여하였고, 개정된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가 만1세반 초임교사로 근무를 시작할 때 2차 평가인증도 함께 준비하였다. 원장님께서도 평가인증에서 필요한 필수교육과 의무교육을 주말과 평일에 나누어 끊임없는 연수를 듣게 하셨고,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로도도 상당하였다. 이후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나온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으며 보육현장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영역별 구분과 연령에 적합한 놀잇감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후 어린이집 확장 이전으로 인한 3차 평가인증을 준비하였다. 이전으로 인해 보육시설과 교재교구들은 새것이라 환경과 안전보다는 보육계획운영 및 실행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준비를 하였다. 3차 평가인증을 마무리하며 면담대상 교사로 선정되어 관찰자 앞에 앉아 면담도 했다. 2차 평가 인증

때에는 신입교사라 면담에서 제외되었지만 3차 평가인증에서는 면담의 기회가 생겼다. 교사면담을 통해 질문 받은 것들은 담당학급은 몇 세이며 몇 명의 아동과 함께 지는지, 아동학대 시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하는가, 소방대 피훈련 시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 개인 업무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가,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은가, 중간관리자(주임, 원감)들이 평가인증 준비에 함께 협조적으로 도움을 받았는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상기하며 천천히 답하였다. 당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였고 힘들었지만 성취감을 느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생겼다.

이후 의무로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 하며 개정된 평가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이전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며 겪었던 업무과중과 야근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의 개정방향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보육교사들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과 보육운영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0년 보육체계개편으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보육시간을 줄이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고 하였고, 2019년 개정 누리과정으로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이 실천되며 보육계획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며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질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동료, 후배, 선배 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현장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평가지표가 축소됨에 따라 서류들도 축소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로 인해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았으며, 필요 항목에 따른 수정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추가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연구자는 평가인증제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한 보육교사들의 경험은 무엇인지, 실제 보육 현장에서의 운영을 통해 어떤 어려움과 요구가 있는지 탐색해보는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보육교사의 다양한 경험과 어린이집 평가제 개선을 위한 요구를 탐색해보며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용어의 정리

1) 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어린이집 평가)에 근거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평가제도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방향으로 한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지표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의 4영역을 중심으로 18지표, 59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등급은 4등급(A,B,C,D)으로 구분하여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받고 평가등급에 따라 사후방문지원을 받는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0).

Ⅱ. 이론적 배경

1. 어린이집 평가제

1)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배경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11,773천명, 2018년 기준으로는 11,893천명, 2019년 기준으로는 12,097천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1.052명, 2018년에는 0.977명, 2019년에는 0.918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정부는 여성의 높아지는 사회·경제활동 진출과 급격하게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으며(한국보육진흥원, 2018),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확충을 시작하였다(임정은, 2020). 또한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류혜영, 2019).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장과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보육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되었다(한국보육진흥원, 2019). 제1차 평가인증(2005년~2009년) 때에는 도입과 정착기로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린이집의 보편적인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 2차 평가인증(2010년~2017년 10월)은 인증 결과에 대한 ‘차등화’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 평가인증(2017년 11월~2019년 5월)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운영체계와 지표를 단계적으로 보완해왔다(보건복지부, 2019).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관리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20%에 해당하는 미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으며, 영유아의 안전과 권리 존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었다(이원선, 2019).

이에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국정과제48-3)’ 실현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의무 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8년 12월, 「영유아 보육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의무평가제 연구용역을 통해 보육의 질 서비스 관리를 위한 평가제 운영체계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부모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한 최종논의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제 시행을 위한 운영체계 및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2019년 6월 12일에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 평가제는 이전에 실시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달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평가를 통해, 미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보완함

으로써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2) 어린이집 평가제 목적

어린이집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목적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0).

첫째,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기준을 제안하고 질적 수준을 높인다.

둘째,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보육 서비스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 서비스를 지속해 보살피며 국가의 책무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셋째, 평가제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 수준을 올리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과 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은 평가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집 스스로 평가제 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생활화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영유아 및 부모, 교직원의 조화로운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어린이집 평가제 주요 내용 및 평가지표의 특징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결과 등급에 따라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비교하여 어린이집 평가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신청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과정(총4개월)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참여수수료-어린이집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과정(총3개월)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참여수수료-국가부담
평가결과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4등급(A, B, C, D)
평가주기	(유효기간)3년(A등급 1년 연장가능)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결과공표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결과활용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 대상 우선 선정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제출 - 확인점검 - 확인방문 - 인증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제출(A,B등급) - 사후방문지원(C,D등급 의무실시) - 확인점검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0). 2020어린이집평가매뉴얼,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 참고하여 재구성함.

표 1의 내용에서처럼, 평가제에서의 평가대상은 평가인증제에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과 달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평가과정이 3개월로 단축되었으며, 평가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의무화되면서 참여수수료를 국가가 전액부담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현장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등급으로 부여되며, 평가등급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평가주기가 결정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연속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의 우선 대상이 된다. 평가 후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사후방문지원, 평가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불시방문을 통한 확인점검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조정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변경되면서 평가지표는 제 3차 평가인증에서의 통합지표의 기본방향을 고수하면서도 제한점을 보완하고,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누리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을 지표에 적용하였다(이원선, 2019). 평가제 지표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영유아 안전·권리 존중 및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권리 존중’, ‘놀이’, ‘안전’가치를 강조하고 영유아 중심의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 권리존중지표를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급·간식 위생, 안전요소를 필수요소로 지정하여 평가의 최상위 등급을 받기위한 필수조건이 되도록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지표·항목 수를 감축하고 지표별 평가항목 수를 3~4개로 균형 배치하여 기존 지표에서의 등급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지원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처우 및 스트레스 관리 관련 지표를 강조

하고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항목을 강화한 것을 주요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9, 2020).

어린이집 평가제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실행되는 것은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평가지표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필수지표로 강조하고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의 보육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제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국가는 2012년 3월, 무상보육정책을 도입하여 만0세에서 만2세, 만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실시하였다. 2013년 3월부터는 무상지원대상을 만0에서 만5세 영유아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보육과 교육의 경험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어린 연령의 영아시기부터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김혜민(2016)). 이처럼 가정이 아닌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은 이전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으로 돌보던 역할에서 학교 이전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들과 함께 지내는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영숙, 2020). 더욱이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이 실행되며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보건복지부, 교육부, 2019)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

고 지원하는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은 보육교사의 역할과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영향 받게 된다(정승영, 윤은주, 2020). 이에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지내는 동안 영유아들이 원만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피고, 영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참여를 통한 전인발달을 도모해야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20).

영유아와 오랜 시간을 생활하게 되는 보육교사에게는 단순한 양육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복합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영숙, 2020).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유능한 아동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이은주, 김정미, 2020),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유아의 개인적 발달 특성과 흥미, 적성을 파악하여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학습 환경과 교재교구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미정, 2019).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이 영아와 유아들이라는 점에서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한 보육교사의 역할도 요구된다. 특히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영아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영아들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역할이 강조되며,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전반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고려하며 보호자, 교수 조직자, 상호작용자, 자료제공자, 질문자, 평가 및 기록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김정원, 심은희, 이경화, 이연규, 장은주, 전선옥, 조순옥 조화연, 최일선, 2010)

이를 종합해 보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특징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발달과 인성교육을 위해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영유아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영유아를 존중 하는 보육·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과 장시간을 함께 하고,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며 영유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정승영, 윤은주, 2020). 보육교사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달리 영유아에 대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서영숙, 김경혜, 2005).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양질을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보육교사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영유아들이 발달적 특성으로 표현되는 행동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김정원 외, 2010).

특히 어린이집의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며,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리,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교수방법, 영유아의 흥미와 자발적 놀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역할과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영숙, 2020). 이에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감 형성을 위해 정서적인 지원과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강주연, 2020).

이를 종합해 볼 때,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영유아·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이 강조되고,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강화(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0)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의 권리존중 및 놀이중심의 보육 과정이 강조되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개정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보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요구된다.

3. 선행연구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어린이집 평가의 개선방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이전의 통합지표를 적용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시기와 어린이집 평가제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이전,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시기에 이루어진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탐색한 연구(김혜경, 2018; 김혜은, 2018; 엄정윤, 2019; 이수진, 2019; 최재경, 2016),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보육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정진희, 이대균, 2017; 이지연, 2020)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재경(2016)은 어린이집 3차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와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비교하면서 보육교직원인 원장과 보육교사는 컨설턴트의 컨설팅에 대해 요구하는 영역이 달랐고, 현장 평가에서 현장관찰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과 참여경험에 따른 현장지식이 많은 현장관찰자를 확보되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김혜경(2018)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를 경험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원장은 보육과정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고 보육교사는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를 감소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어린이집(3차통합지표) 평가인증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및 요구를 탐색한 엄정운(2019)은 평가인증 사후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원장은 우수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환경 아이디어를 제공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인력을 지원 받고 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평가인증지침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장과 보육교사의 차이가 존재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인증 사후유지관리는 획일화된 보고서 형식이 아닌 어린이집 상황에 맞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또한 김혜은(2018)에 평가인증 통합지표와 운영체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연구에서 평가인증 통합지표 4개 영역에 대한 ‘교직원 영역’에 대한 적절성 인식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는 평가인증 준비 과정으로 발생한 연장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없어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낮게 인식한 결과로 보육 교직원들을 위해 교육 훈련의 기회,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고 직무만족감과 교사 효능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었다. 이수진(2019)은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따른 어린이집 실외공간구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개선방향에 대해, 보육교사는 옥외놀이터 및 다양한 실외 공간이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자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관 유형에 따라 실외공간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지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경영실태를 확인한 뒤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교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진희, 이대균(2017)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실행에 따른 교사의 성장에 대한 탐색을 통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평가에 참여하면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가지고 민감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

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지연(2020)은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보육교사가 이직을 결심하는 데 있어 평가인증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추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높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이전 통합지표를 적용한 제3차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고 영유아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보육 업무에 대한 인력 지원 및 현장에 적합한 평가인증 지침서 개발과 보급, 보육활동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교사교육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참여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평가과정에서 보육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사와 관련된 연구들도 대부분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및 요구를 탐색한 연구(강진실, 2020; 류혜영, 2019; 백진희, 2020; 한지현, 한영숙, 2020), 어린이집 평가제에서의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탐색한 연구(진은영, 이경화, 2020)가 수행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김은정, 2020; 임정은, 2020), 어린이집 평가에서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탐색한 연구(이현미, 2020)등이 수행되었다.

먼저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진실(2020)은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의 모든 영역이 보육의 질 관

리를 위해 중요하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환경은 영유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에서 안전에 대한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한지현, 한영숙(2020)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와의 권리 존중을 위한 적절한 상호작용의 이론은 알고 있지만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평소 꾸준한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와 준비 자세가 필요하므로, 보육교사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였다. 백진희(2020)는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지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등급제 평가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관찰자에 따라 평가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나 평가제 지표의 세부항목 개수를 충족해야 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류혜영(2019)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평가제는 등급 설정에 목적보다는 보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보육과 교육의 함의가 가정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가정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보육의 질적 성장을 구축해야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탐색한 진은영, 이경화(2020)는 어린이집 평가를 주제로 수행된 질적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 업무의 부담, 평가의 본질에 대한 회의, 평가지표 교육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시 평가지표의 개선, 평가업무의 축소, 평가의 본질 추구를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정(2020)은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경험이 교사 전문성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이나 평가인증 경험 유·무에 따라 전문성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보육교사의 근무

무경력이 높거나 평가인증 경험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평가제 제1영역 지표에 대한 수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보육교사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연수, 교사의 자율성 및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에 대한 보육교사의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정은(2020)은 보육교사의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보육 전문가로서 보육 관련 지식이 늘어나고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경험이 많은 보육교사일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해 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현미(2020)는 어린이집 평가에서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탐색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역할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제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성장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직무에 대한 만족은 근무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및 개선방안을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교사들이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가제 지표 영역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평가제 교육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하고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실행이 요구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표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과정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이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의 경험과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를 탐색하여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하여 직장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2020년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서울시 소재의 국공립보육시설 교사 5명, 직장보육시설 교사 5명으로 총 10명의 보육교사들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아반과 유아반에서의 운영지침이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연구에 참여하는 보육교사의 담임 학급이 영·유아반으로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2> 연구 참여자 일반적 배경

교사	교사경력	기관유형	학력	담당학급	평가제 예정일
A교사	8년차	직장	대학졸업	만5세	7월
B교사	6년차	직장	전문 대학졸업	만4세	7월
C교사	6년차	직장	대학졸업	만3세	9월
D교사	6년차	직장	전문 대학졸업	만4세	7월
E교사	5년차	직장	대학졸업	만0세	8월
F교사	4년차	국공립	대학졸업	만0세	7월
G교사	7년차	국공립	대학졸업	만1세	9월
H교사	10년차	국공립	대학원졸업	만1세	7월
I교사	9년차	국공립	대학졸업	만2세	9월
J교사	5년차	국공립	대학졸업	만2세	9월

1) A교사

A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총 8년의 근무기간동안 2차 평가인증을 한 번 경험해 보았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만5세반을 2년 동안 담임으로 재직 중이고, 총 근무 경력 동안 유아반(만3~5세반)만 담임 하였다. A교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정누리과정 원격연수만 이수하였다. 교육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 전과는 다른 놀이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이로 인한 교사의 역할에 중요성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7월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기한이 연기되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한 사설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들과 협력하여 평가제와 관련한 서류 및 환경 요소들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하였다. A교사는 누리과정과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차이는 알고 있으나 개정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제의 적용에 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유아반을 맡은 경험으로 개정누리과정에 관심이 많았고 이로 인해 시행되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기준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였다. 컨설팅을 경험하면서 아직까지는 평가인증과 평가제의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놀이의 관점이 유아로 바뀐 만큼 준비해둔 계획보다 유아의 관점에 따라 놀이의 흐름을 진행할 수 있어 교사로서 더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2) B교사

B교사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근무 중 전공심화 과정을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총 6년의 근무기간 동안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각각 한 번씩 경험하였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만4세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 경력 동안 만4세 유아반만 담임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7월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1월~12월로 미루어지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였다. 평가제와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연수가 아닌 원격연수만 받아 세부사항까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교사들과 협의하여 보육과정을 바탕으로 보육계획 및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 계획 수립시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교육계획을 변경하고 개정누리과정에 맞춰 놀이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주도적인 놀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존중하는데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놀이에 따라 확장된 놀이 지원을 어디까지 해주어야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

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1년 미만의 신규 어린이집인 만큼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에 따라 서류양식이 상이하고 서식이 준비되어있어도 상황에 따라 달리 변화되니 서류적인 부분에서 수정하고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반복적인 작업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류업무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평가인증사무국에 전화를 해 문의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전화연결도 잘 되지 않아 어려웠다고 하였다. 평가제 관련 비대면 교육만 진행되고 계속해 평가제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3) C교사

C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총 6년의 근무기간동안 3차 평가인증 과정에 한 번 참여하였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만3세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만0세 영아반과 만3세 유아반을 담임한 경험이 있다.

평가제 예정일은 9월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1월로 미루어진 상황이었다. 평가제를 위해 각 영역을 파트별로 나누어 교직원들끼리의 스터디 그룹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가지표 세부내용을 인지하고 학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교육의 심화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위생과 영양 부분에 있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공부하며 놓치는 부분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같은 연령인 다른 반 교사와도 의견을 나누어 어린이

집 평가제 준비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개정누리과정에 맞춰 수업준비를 하다보면 평가제 지표 항목들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나 안전과 관련한 요소들이 어려워 망설여질 때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제 평가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지만 준비되어 있는 서적으로는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에는 평가제를 받은 기관이 주변에 없어 도움받기가 어려웠고 평가제와 관련된 세부 강의들도 중단된 상태라 답답하다고 하였다.

4) D교사

D교사는 전문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현재 학사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총 6년의 근무기간동안 평가인증 참여 경험은 없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만4세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기간동안 만3세반 담임 경력 1년을 제외하고는 만2세반을 5년째 담임하고 있다.

평가제 예정일은 7월 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보류 통보로 평가제가 내년으로 미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만2세반의 담임으로 어린이집 평가제의 다른 요소들보다 '권리존중'에 대한 상호작용과 현장 적용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동료교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영아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영아의 개별적 요구를 알아차리고 반응을 해주기보다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특히나 점심시간, 전이시간 등 영아들의 안전에 유의해 평소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스스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근무하는 동안 평가인증을 준비해본 경험 없이 평가제를 준비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실수로 동료나 기관 평가에 누를 끼치지 않는지 걱정이 많았고, 평가제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경험한 교사들도 새로 바뀐 평가제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학습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함께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의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5) E교사

E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총 5년의 근무기간동안 2차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한 번 있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만0세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기간동안 만4세반 담임 경력과 만0세~만2세반을 담임하였고, 유아반 보다는 영아반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8월 말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10월 말로 미루어져 있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였다. 9월에는 4차 표준보육과정으로 개정되는데 평가제 기준으로 하루일과 속에서 아이들의 놀이상황을 지원하는 경우의 세부적인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놀이와 활동의 경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다. 교육과 현장적용에 대한 사례들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현장 관찰자가 나온다고 해도 그 주관적인 평가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평가제 기간이 미루어지면서 평소 준비기간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이론적인 부분과 자기 장학을 통해 심화보충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 연구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재 선정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쓰지만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수정 및 보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야근은 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6) F교사

F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총 4년의 근무기간동안 2차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한 번 있었다. 현재 근무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만0세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 경력 동안 만3세 유아반과 만0세 유아반을 담임한 경험이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8월 초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보류 통보를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만0세반을 담임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등원하는 영아들이 거의 없고 신입적응 프로그램도 단 3명의 영아만(총 9명)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제를 진행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들의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평가제 날이 언제인지 물어보시고 등원여부를 계속 고민하신다고 하였다.

등원하지 않은 영아들에게 전화로 근황을 물어보고 있으며 등원한 영아들 또한 몇 시간만 있다가 하원 한다고 하였다. 신입적응 프로그램일 때 평가제가 시행될까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교사의 마음으로 평가제가 미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온라인 교육 중에서 영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만0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영아와 영영아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사례들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만0세반 전체 영아가 등원 시 3명의 교사가 9명의 영아들을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평가인증과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관찰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하고 아동 대 비율과 현장의 사례들을

적용시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수많은 평가지표들을 지켜나가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현장의 노력을 생각하고 평가자들도 보육교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적용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7) G교사

G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총 7년의 근무기간동안 2차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두 번 있었다. 현재 근무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만1세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기간동안 만0~2세 영아반 담임 경험이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8월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현재 통합 지표책자를 참고하여 원에 맞게 융통성 있게 실행하고 있으며 중앙보육정보센터나 평가인증사무국에 자료서식을 요청하고 평가제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서 평가제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코로나 발병 전부터 평가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원장님과 중간관리자들이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집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평가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정해진 서식이 없었으니 어린이집 상황과 통합지표에 의거해 서식을 만들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확신이 들지 않아 서류를 재작성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현재는 미뤄진 평가일정으로 평가지표 세부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도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영·유아들을 위한 환경 및 교재교구들

이 변화되고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내부 시설들도 달라지고 있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동료 교사들과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에 대해 이야기 하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수업 자료와 자신의 교수학습법을 공유 하며 자연스럽게 장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8) H교사

H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총 10년의 근무기간동안 2차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두 번, 3차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 한 번 참여하였다. 현재 근무 중인 국공립 보육시설기관에서는 만1세반 담임 및 주임교사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기간동안 만0세~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유아반 담임 경험과 주임교사 경력 3년이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7월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으며 평가제 진행을 내년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H교사는 평가인증을 다수 참여하고 준비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제를 위해 주변 동료교사들의 경험을 많이 듣고 준비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와 평가인증 요소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을 먼저 알아낸 뒤 불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지만 실상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평가인증에서 했던 부분까지도 다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개정누리과정으로 바뀌며 유아반에 대해서는 예시 서식들을 볼 수 있었지만 영아반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어 서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였다. 또한 주임교사로서 동료 교사들을 챙기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고 원장님과 일정조율을 맞추다 보니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집합교육도 듣고 컨설팅도 받으며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 동료 간에도 좋은 자극을 받고 함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평가인

증과 어린이집 평가제를 경험해 본 동료교사들이 없어 필요성과 자발적인 태도들을 느끼지 못해 아쉽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2020년 보육체계개편을 통해 연장보육교사 제도와 휴게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평가제 항목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9) I교사

I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총 9년의 근무기간동안 2차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세 번 참여하였다. 현재 근무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만2세반 담임 및 주임교사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 경력 동안 만1세~만2세 영아반 담임 경험과 1년의 주임교사 경력이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9월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더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평가지표 책을 토대로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듣고 논의하며 공부하고 있으며 각 지표에 맞는 부분을 하나씩 배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원장님께서 준비하는 상호작용 컨설팅을 통해 준비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을 마친 상황이었다. 운영위원분들도 관심이 많아 건강과 안전에 대해 건의해주시고 이를 반영해 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원장님께서 ‘교직원’ 영역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설명을 해주시고 보육교직원들이 그렇게 적용받고 있는지 의사를 물으며 편안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가인증을 세 차례 준비하고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평가제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사전에 다양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여 사실적으로 현장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

과 어린이집 평가제의 기준 및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지 잘 느끼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다. 또한 한창 어린이집 평가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컨설팅들이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다보니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동료 교사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며 평가제 재기 시점을 계속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10) J교사

J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총 5년의 근무기간동안 2차 평가인증 참여 경험이 한 번 있었다. 현재 근무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만2세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며 총 근무기간동안 만2세 영아반과 만3세~만5세 유아반 담임 경험이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은 9월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질 것 같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한 교육 자료를 살펴보며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가지표를 보며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담임교사 업무를 하며 평가제 지표를 살피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의 놀이시간 관련하여 숙지한 부분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신경을 쓰지만 계획된 활동과 교사 업무, 바깥놀이 시간 등 외부 조건들에 의해 영아들의 놀이시간이 분절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일과 중에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가 어렵다고 하면서 영아들이 하원 후에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주도적으로 평가제 준비를 기대하는 원장님과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심리적, 신체적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로 인해 놀이중심에 대한 정의가 다시 자리 잡히고 있으며, 그동안 기관과 원장님의 운영방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일 정들이 놀이 관련 활동으로 변해가고 계획된 놀이보다는 영아들의 주도적인 놀이와 자연스러운 확장활동과 연계활동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 다고 이야기하였다.

2.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연구에 앞서 연구 주제 및 면담 질문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4 월 8일과 10일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교사마다 1회씩, 총 2회 에 걸쳐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소요시간은 교사 1인당 5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예비 면담 결과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한 개정방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 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이 도입된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담감 및 적용의 어려움, 문서의 간소화의 실행 어려움, 아동권리를 위한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및 준비과정, 놀이 및 활동지원의 어려움, 전자 출결시스템으로 달라진 정책으로 인한 혼돈을 보였다. 예비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더 개방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질문 내용을 구성하 고 면담을 진행하며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간계획안, 일일계획안, 관찰일지 등의 문서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의 현장노트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면담

면담은 2020년 5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5개월에 걸쳐 10명의 보육교사들과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은 연구 참여자 1인당 2회씩 실시하였으며 총 20회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 1인당 35분에서 50분정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우선으로 하여,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야외에서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개별면담을 1회 가진 뒤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SNS로 안내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질문에 의해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면담이다(김영천, 2017).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을 차례대로 진행하되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며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회기	교사명/ 직책	기관유형	면담일	소요시간 (분)	내용
1차 개별 면담	A교사	직장	2020년 5월 29일	45분	- 연구 주제 및 목적 안내 -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 1차 면담 : 일반적 배경 및 평가 인증 경험 여부 및 어 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이해정도
	B교사	직장	2020년 6월 6일	40분	
	C교사	직장	2020년 7월 28일	30분	
	D교사	직장	2020년 7월 25일	45분	
	E교사	직장	2020년 7월 1일	50분	
	F교사	국공립	2020년 7월 21일	50분	
	G교사	국공립	2020년 8월 4일	40분	
	H주임	국공립	2020년 8월 28일	35분	
	I주임	국공립	2020년 8월 22일	40분	
	J교사	국공립	2020년 8월 8일	40분	
2차 개별 면담	A교사	직장	2020년 7월 31일	60분	- 1차 면담 정리 - 2차 면담 :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한 경험 및 개선방 안 요구
	B교사	직장	2020년 8월 9일	40분	
	C교사	직장	2020년 8월 24일	40분	
	D교사	직장	2020년 8월 17일	35분	
	E교사	직장	2020년 8월 5일	40분	
	F교사	국공립	2020년 8월 26일	40분	
	G교사	국공립	2020년 9월 7일	50분	
	H주임	국공립	2020년 9월 10일	45분	
	I주임	국공립	2020년 8월 29일	50분	
	J교사	국공립	2020년 8월 31일	40분	
전체 면담 소요시간				855분 (약 14시간 25분)	

면담 시 연구 참여자의 동의로 모든 내용의 녹음을 진행하였다. 1차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와 10~15분 정도 관계 형성을 위해 연구자의 경력과 경험, 연구 참여자의 평가인증의 참여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소개 및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경험한 것을 공유하며 연구 참여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연구 참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심도 있는 면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1차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평가제에 참여하는 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차면담 시작 전에는 1차면담의 정리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한 뒤 해석이 모호한 경우 혹은 의미를 재수정 해야 할 부분들을 살피며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2차면담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어려움과 요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 지표 영역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2차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정리내용을 살펴보며 1차면담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먼저 말해주거나 해당 부분을 미리 메모해 이야기를 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1차면담 때보다 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유선통화, SNS를 통해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 후 녹음된 자료들은 즉시 전사하였다. 심층면담의 질문 범주 및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4> 심층면담 질문 범주 및 내용

질문범주	질문내용
연구 참여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성명 및 연령, 최종학력 및 전공 - 교사 경력과 직위여부 - 담당학급연령 및 경험한 학급여부 - 평가인증 사전 참여정도 - 어린이집 평가제 예정일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제 개정 방향,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한 이해 - 평가제 시행의 의미 - 평가제 평가지표의 이해 - 평가제 관련 사전교육 방법 (온라인, 컨설팅, 집합교육 등) - 평가제 조력기관 유형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사무국 등) -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험 (기억에 남는 일화, 평가제와의 비교 등)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제와 관련된 사전교육 운영방식 및 참여 경험 (정부주도 교육 및 어린이집 자체 교육 운영) - 평가제 준비과정에서의 역할 및 수행 - 평가제 준비과정에서의 교직원 관계 - 평가제 평가지표 영역별 내용의 현장 적용 경험 - 평가제 추진방향관련 현장 적용 경험 - 개정 누리과정과 평가제 지표 적용에서의 경험 - 평가제 준비과정 및 현장적용과정에서의 보람 - 평가제 준비과정 및 현장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 -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

(2) 문서수집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하여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020 어린이집 평가 교육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실제적인 평가제 준비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료 제공 의사를 밝힌 교사들에게서 해당 어린이집의 주간계획안, 일일계획안, 관찰일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현장노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면담 상황에 대한 요약, 연구 참여자의 반응 및 표정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면담 후 연구자의 생각, 느낌, 반복되었던 문구들과 궁금한 내용들을 적으며 보완하였다. 현장 노트는 다음 면담 시 반영해야할 질문 목록들을 준비하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면담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 평가제 참여과정을 심층 면담한 녹음 전사 기록 본과 문서 자료, 현장 노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표 5와 같다.

<표5> 수집된 자료

자료목록	자료수집기간	수집된 자료
면담전사본	2020년 5월 29일 ~2020년 9월 10일	총 20회, 녹음전사기록 (A4용지, 210장)
현장노트	2020년 5월 29일 ~2020년 9월 10일	현장노트(A4용지, 20장)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A4용지,10장)
문서자료	2020년 5월 29일 ~2020년 9월 10일	주간계획안 일일계획안 관찰일지 평가제 스터디 계획표

본 연구자는 김영천(2017)의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6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제시한 표 6과 같다. 1단계, 자료 읽기 및 정리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수집한 전사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를 분석하고 저장하였다. 2단계, 분석적 메모쓰기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1차 심층 면담 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들으며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표현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차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일화를 이끌어 내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분류 및 범주화된 자료를 살펴보며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주제와 범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돌아보았다.

<표6>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6단계

단계	관계	분석절차	세부내용
1단계	↓	자료 읽기/정리	자료의 반복적 읽기와 자료 정리
2단계	↓	분석적 메모 쓰기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	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	추가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5단계	↓	3차 코딩	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6단계	↓	연구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 제시, 명제 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

출처: 김영천(2017). 질적연구방법론 1:Bricoleur.

3단계, 1차 코딩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문장이나 반복되는 용어를 묶고 표시하며 용어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에서는 ‘교사마다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 ‘외부 컨설턴트를 통한 어린이집 자체 교육 사

례’, ‘교사들의 협력적인 교육 운영 사례’, ‘하루일과를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사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천 사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며 교사 스스로 변화됨을 인식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의 개선방향에 따라 자율적인 보육운영이 가능하게 된 사례’,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보람과 교사역할의 효능감을 느끼는 사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 ‘업무증가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한 사례’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는 ‘어린이집 평가제 사후관리 강화’, ‘장기적인 평가과정의 필요’,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 ‘어린이집 현장 평가에서의 교사 면담 참여기회 확대 요구’, ‘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서류 간소화 요구’, ‘어린이집 평가의 교직원 영역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요구’, ‘영유아·놀이중심 보육 실천을 위한 교사교육에 대한 요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사교육에 대한 요구’, ‘보육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지표교육에 대한 요구’, ‘컨설팅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보육현장에서의 혼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해설서와 조력기관에서의 지원 내용의 차이’, ‘조력기관에 대한 수월한 접근성 필요’로 1차 코딩되었다. 4단계, 2차 코딩단계에서는 범주화된 개념과 관계를 확인하며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천과 보람’ ‘교수학습의 자율성이 실현되는 평가’ ‘개선되지 못하는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이며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는 ‘어린이집 평가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실천을 위한 교사역할 지원’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로 범주들의

의미와 관계에 따라 연결해 볼 수 있었다. 5단계, 3차 코딩을 통해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의 경험과 요구의 범주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7>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연구문제	상위범주	하위 범주
1.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 교사마다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 - 교사들의 협력적 교육 운영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천과 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통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는 사례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천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을 통한 교사 변화 및 보람
	교수학습의 자율성이 실현되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에 비해 융통성 있는 보육실천 -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의 개선방향에 따라 자율적인 보육운영이 가능한 사례 -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의 보람과 교사역할의 효능감
	개선되지 못하는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 - 업무증가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 - 원장과의 관계 어려움

2.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	어린이집 평가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가제의 사후관리 강화 - 장기적인 평가과정의 필요 -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현장 평가에서의 교사 면담 참여 기회 확대 요구 - 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서류 간소화 요구 - 어린이집 평가의 '교직원'영역 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요구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실천을 위한 교사역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 보육 실천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요구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사교육에 대한 요구 - 보육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지표교육에 대한 요구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보육현장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경험 -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해설서와 조력기관에서의 지원 내용의 차이 - 조력기관에 대한 수월한 접근 필요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1)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자는 연구를 시행하기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4시간을 이수한 뒤 윤리적 연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윤리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제목, 목적과 방법, 내용 및 연구 절차 등에 관해 소개하였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뒤 서명을 받은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참여자들의 신변정보들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알파벳 표기를 하였다. 연구 후에는 모든 자료를 파기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2) 연구의 신뢰성

연구자는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할 때 마다 연구자의 현장노트를 작성하고 심층 면담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을 전사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어 면담에서 표현한 내용과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는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관련 석사과정 2인과 아동복지 관련 석사 학위를 소지한 1인에게 연구방법이나 연구결과 해석에서의 오류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주기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도가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과정에서 개정된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평가제의 필수 지표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내용을 반영한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교수학습 실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과정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앞두고 정부기관 주도의 어린이집 평가제 집합교육이나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제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제 교육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교사들의 협력적 교육방법들도 실행되고 있었다.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평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이번에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가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평가지표 중에서 특히, 아동학대 문제나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상호작용방법이나 보육환경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평가제가 의무제로 바뀐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해 어린이집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D교사, 2020. 07. 25)

이번 평가제는 평가인증에서 평가제로 명칭도 변경되었고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보육운영이 반영되면서 평가지표 내용도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변경사항 자료를 살펴면서 바뀐 용어들을 정리하였어요. 예를 들어, '자유선택놀이'에서 '실내놀이' 혹은 '바깥놀이'로 바뀌었고, '목표'도 '교사의 기대'로 용어들이 변경되었어요. 이렇게 변경된 용어들은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바로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고 동료 교사와의 변경된 용어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요.

(B교사 면담, 2020. 06. 06)

저는 영아반을 맡고 있는데,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중에서도 만 0세에서 만 2세와 관련된 지표들을 더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영아반의 경우는 일상생활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보니, 일상생활영역과 관련된 평가제 지표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어요. 지표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은 다른 반 선생님들에게 물어도 보면서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I교사 면담, 2020, 08. 22)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가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하게 되는 의무제로 변경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를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나름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표내용을 찾아보면서 교사 스스로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2019년 개정 누리과정과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이 반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을 찾아 보육운영에 적용해보거나 각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구분하고 정리하며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평가제 지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교사 스터디 모임이에요. 외부에서의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이 주로 강의형태이고 평가제 해설서를 읽는 정도로 진행되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평가제 해설서 내용을 분담하여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평가인증제도와 달라진 부분이나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표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어린이집 평가제의 준비정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20. 05. 29)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저희 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표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평가제 지표의 각 영역을 교사들이 담당하여 공부하고 전달강의를 하자고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평가제 영역을 세분화하고 각자 지표 영역을 맡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부분은 안전관련 부분 이에요. 안전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시설 점검을 하고 있어요. 보육환경과 관련하여 지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나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어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필요하면 수리요청을 하거나 보완하고 있어요.

(C교사 면담, 2020. 07. 28)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유아의 흥미와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원에서도 아이들의 흥미와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교사들을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팀을 구성하고 각 연령별 주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영역별 지표에 대해 소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유아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인 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놀이 지원계획과 지원방향 등을 살펴보고, 영아반은 영아권리존중에 따른 상호작용 부분을 중심으로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에 따른 교사의 상호작용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니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G교사 면담, 2020. 08. 04)

저희 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교사들을 평가지표에 따라 '교재교구', '문서관리', '환경', '안전'의 4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각 팀마다 팀장과 구성원으로 하여 스터디가 이루어지는데 평가제 준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침서 이론을 정리하고 익히면서 평가제 지표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어린이집 평가를 경험해 본 교사들이 많지 않아 걱정이 되었는데 스터디가 계속되면서 교사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분야를 나누다보니 더 심도 있는 스터디 활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H교사 면담, 2020. 08. 28)

위의 사례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앞두고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지표 내용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보육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영역을 분담하여 해당 영역을 공부하고 서로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표교육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정기적인 소규모 교육을

통해 지침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의 원내 장학 등,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의 영역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체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평가제 장기화에 대한 염려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평가제의 개정방향과 목적, 주요 개정내용, 평가 운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평가제를 대비하고 있었다.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천과 보람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필수 지표로 선정하여 영유아를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교사 역할을 강조한다. 본 연구 참여 보육교사들도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강조하는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평가 지표에 관심을 갖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 역할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전반에 걸쳐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가정연계 방안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며 보육교사 스스로는 물론이고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이 전이시간을 힘들어하는 영아가 있어요. 하루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날도 아이들에게 정리하자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정리도 하지 않고 드러눕거나 울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아에게 다가 가서 손을 잡으면서 “우리 00가 놀이도 잘하지만 정리도 잘하지? 맛있는

점심 먹고 와서 또 놀자.” 라고 하니 망설임 없이 “응 그래.” 라고 하며 제 손을 잡으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정리하는 아이를 보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진작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못했을 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E교사 면담, 2020. 07. 01)

기저귀 갈이를 할 때도 “00가 하고 싶은 기저귀는 무엇일까? 어떤 기저귀를 꺼내올까?” 라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기저귀에 있는 동물의 이름과 색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어, “오늘은 악어 기저귀를 가지고 왔구나. 기린 기저귀를 가지고 왔구나.”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주고 있어요.

(E교사 면담, 2020. 07. 01)

점심식사 시간에 모든 유아들에게 동일한 양으로 배식을 했었어요. 이번에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점심식사 시간에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교사 회의를 한 적 있어요. 회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식을 미리 하지 않고 아이들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배식해 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카레가 나왔을 때 카레를 미리 밥 위에 부어두지 않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을래? 적게 먹을래? 었어줄까? 부어줄까?’ 등과 같이 물어보고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배식해 주고 있어요.

(B교사 면담, 2020. 06. 06)

대집단 활동을 할 때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여기보세요. 박수 짹!”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집중을 시키려고 무섭게도 말했었는데... 영유아 권리존중을 강조하

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상호작용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00가 힘들면 00선생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 있어도 돼.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니? 아니면 다른 놀이를 할까?”라고 물어보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해서 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있어요.

(D교사 면담, 2020. 07. 25)

바깥놀이를 하던 중 한 아이가 바지에 대변을 본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린이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씻겨주었는데, 아이한테 “왜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 “창피했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뒤처리를 하면서도 아이의 말에 공감 해주면서 불편했을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안심시켰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전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다그친 적도 있었거든요. 어린이집 평가 준비하면서 상호작용에 대한 예시나 발문을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의 입장을 공감하는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D교사 면담, 2020. 07. 25)

위의 사례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에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유아를 존중하기 위해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하루 일과 전반의 모든 상황에서 영유아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도 공감하며 지지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영유아가 스스로의 선택과 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우리 반 아이 중에 어린이집 생활을 정말 안정적으로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아이를 계속해 살펴보니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잘 놀다가 갑자기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속상한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상담을 하였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생 때문에 스킨십과 애정표현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더 많이 안아줘야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생이 태어난 뒤에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거였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도 미안한 마음에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J교사 면담, 2020. 08. 31)

평소 편식이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영유아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아이에게 보이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그동안 급·간식을 먹는 아이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한 개만 먹어보자. 이번에는 00 먹어보자.”와 같이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먹을 건지 말해줄래?” 하면서 아이가 먹을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물어보니 아이가 직접 음식을 집게로 집어 식판에 놓으며 먹을 양을 그 때 마다 정하고 스스로 먹어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모님과도 식습관과 관련한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 데, 이처럼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부모님에게도 공유하였어요. 지금은 편식하는 모습이 많이 좋아졌어요.

(A교사 면담, 2020. 05. 29)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일상을 부모님과 공유하며 가정과 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 가정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학부모님들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연계를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 존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아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발달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아들은 월령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상호작용과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내가 아이를 더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그러다보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F교사 면담, 2020. 07. 21)

영유아의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아이마다 연령별 발달 특성이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자기 조절 수준이나 배변훈련, 아이의 감정 읽기 등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발달과업을 이해하려고 하고 제가 공부한 대로 반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행동을 더 많이 관찰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도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려고 노력해요.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하고 생각하게 되고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놀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좋아요.

(B교사 면담, 2020. 08. 09)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다가 서로 갈등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한 번은 아이들 놀이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 한 아이가 "왜 그래? 00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됐어? 속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요. 교실에서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했던 말들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제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지만, 선생님이 보이는 반응을 아이들이 따라 한다고 생각하니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교사 면담, 2020. 08. 22)

이번 상담기간 중 학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 중에서도 "우리 선생님은 화도 안 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주시는데 그 때의 기쁨은 평가제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잊게 해 줄 만큼 너무 소중한데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고 말씀하실 때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A교사 면담, 07. 31)

위의 사례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이전에 비해 영유아와 눈을 더 자주 맞추었으며,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대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들의 질문과 요구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영유아의 의도를 이해할 때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반응해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노력이 비록 어린이집 평가제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교사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영유아를 존중하는 태도가 영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영아와 또래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을 보며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 교수학습의 자율성이 실현되는 평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영유아 중심·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통해 영유아의 놀이시간, 흥미영역 구성, 놀잇감 기준 등에서 평가인증제에 비해 융통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의 개정방향이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영유아 중심·놀이중심 보육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의 개선방향에 따라 자율적인 보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을 실천하며 교사로서의 보람과 효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의 활동들이 교사 주도로 계획한 활동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아중심, 놀이중심이라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점차 개정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유아들도 스스로 어떤 놀이를 할지 정하고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요. 가능한 대그룹 활동은 약속이나 규칙을 정할 때 진행하고, 그 외 대부분은 각 영역별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이전에 비해 유아들이 놀이에 몰입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요.

(D교사 면담, 2020. 07. 25)

하루는 블록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바퀴가 필요한데 동그라미 블록은 다 사용해서 없었는지, 한 아이가 네모 블록을 가져오니까 다른 아이가 “그건 바퀴가 될 수 없어. 굴러가지 못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네모 블록을 가져온 아이가 “아니야. 굴러갈 수 있어.” 라며 갈등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개입하여 동그라미

블록과 네모 블록을 바닥에 두고 굴러보며 바닥에 마찰되는 차이를 보여 주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아이들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블록들을 가지고 와 바닥에 두고 마찰력을 측정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동그라미 블록이 마찰력과 닿는 면이 가장 적어서 잘 굴러간다는 것을 놀이를 하면서 경험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B교사 면담, 2020. 08. 09)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놀이에 계속 개입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고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놀잇감을 제공해 줄 때도 같은 종류의 놀잇감이 라도 모양이나 재질을 달리해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리 끼우기 놀잇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는 동물모양, 또 하나는 스펀지 재질의 고리 끼우기, 소리가 나는 고리처럼 같은 활동이지만 다른 소재를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해요. 아이들이 한 가지 기준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I교사 면담, 2020. 08. 21)

위의 사례와 같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교사 주도적인 활동 계획과 실행이 익숙했던 보육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어렵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따라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환경을 탐색하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로부터 수용과 인정받는 느낌으로 자신 있게 놀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여름용품을 파는 가게 놀이를 하다가 캠핑놀이로 확장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게 물건을 캠핑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면서 수레나 트럭 같은 바퀴가 달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주었는데 가게는 움직이는 수레 가게가 되었고, 트럭은 푸드 트럭이 되었어요. 캠핑장 주변에 생필품을 파는 가게와 푸드 트럭이 생겼고 악기가 있는 공간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놀이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 몰라 어려웠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확장하고 필요한 환경들을 만들고 있어 함께 놀이하는데 더 재미있어요. 기존 평가인증처럼 흥미영역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영역에 따른 놀잇감의 종류나 수량을 지켜야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놀이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형식적인 틀 안에서 한정된 놀이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20. 07. 31)

평가인증제에서는 정해져 있는 보육활동이 실행되고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 그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보육일지를 통해 확인하고 했었어요. 그러다보니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계획한 활동들을 다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사 중심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영유아의 주도적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가 격려하고 있는지 등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흥미에 따라 만들어가는 놀이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의 놀이 주제도 교통기관, 공룡, 여름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이공간도 구분되기 보다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은 수영장 놀이를 생각해 물 매트를 준비해주었는데 아이들은 바다라고 하면서 배를 타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수영장만 생각한 제가 너무 고정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 갖게 되었어요.

(C교사 면담, 2020. 08. 24)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계획하여 활동을 제시하고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만들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여 놀이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용되는 재료도 더 자유롭고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가지고 오거나 접착력이 좋은 풀들의 종류를 비교하면서 사용해 보기도 해요. 그리고 놀이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보니 놀이영역 선택으로 인한 다툼도 줄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 영역으로 치우치는 일도 없었어요.

(C교사 면담, 2020. 07. 28)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영유아·놀이중심의 보육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해, 이전에 비해 좀 더 자율적인 교수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보육운영 방향이 어린이집 평가제에 반영됨으로써, 어린이집 평가제 이전에 필수적으로 실행하고 구성해야 했던 보육활동이나 흥미영역, 놀잇감의 준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평가제의 변화가 교사들에게 자율적인 교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오전놀이 중에 아이들이 기차길을 만들었는데, 교실 전체로 레일이 설치되면서 기차놀이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다가 교실에 있던 레일이 복도까지 이어지고 2층 계단에서 1층까지도 연결 되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깥놀이를 가야할 시간인데 아이들에게 바깥놀이를 나가자고 이야기하니 실내놀이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바깥놀이를 오후시간으로 조정하고 기차놀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놀이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도 자신의 놀이를 지지해주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니 더 재미

있게 놀이하는 것 같고 놀이가 끝난 뒤에도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아, 정말 내가 유아중심 놀이를 실행해보았구나!” 라고 느꼈어요.

(C교사 면담, 2020. 07. 28)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보육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흥미나 참여도에 기초해서 계획한 놀이를 평가하는 내용을 주로 적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놀이모습에 대한 관찰 내용을 중심으로 적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발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음 놀이에 적용해보려고 해요. 보육일지 작성에 대해서도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 지원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교사로서 효능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F교사 면담, 2020. 08. 26)

개정누리과정과 평가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와 유아를 위한 놀이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틀에 짜인 계획이나 규칙 등, 틀 안에 익숙했던 교사들은 이런 변화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같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D교사 면담, 2020. 07. 25)

위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유아들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을 확보해주고 유아들의 놀이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놀이 진행과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이처럼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에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을 반영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보육교사들

은 자율적인 교수활동을 실천하며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고 교사 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4) 개선되지 못하는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 역할에 평가제 준비 업무가 과중되는 어려움, 어린이집 원장의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요구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가 보육교사의 평가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업무 증가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중에 '교직원'영역이 있어요. 이번에 평가제 지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교직원' 영역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교사로서의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요. 아이들마다의 개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교사들의 개별적 특성이 교수활동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교사들에 대한 존중은 잘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H교사 면담, 2020. 08 .28)

교직원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원장님이 교사를 대할 때 존중하는 말과 태도 보이기' 등의 항목을 볼 때, 교사들이 아동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도 존중받아야 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늘 아이들에 대한 존중만

을 생각했던 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평가지표에 있는 내용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E교사 면담, 2020. 08. 05)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의 교직원 영역과 관련한 지표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서, 보육교사로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고 경청해주며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교사의 휴게시간을 강조하고 있고 교사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으로 발송되는 공문들을 보면 '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면 요즘에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누리교사와 연장 교사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정교사가 휴게시간을 지키려고 하면 좋지 않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 눈치를 보게 돼요. 빈 교실에 누워 있거나 쉬고 있으면,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는 다 끝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근무태도와 연결되어 지적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부터는 휴게시간을 더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E교사 면담, 2020. 08. 05)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문서를 줄이겠다.', '보육교사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저는 이번 평가제 준비과정으로 인해 휴게시간도 없어진지 오래예요. 보육교사의 권리 중에 하나인 휴게시간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 사실 '평가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근도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번 평가제에서도 서류로 평정되는 것들이 많아 정작

서류간소화가 될 일은 없는 거 같아요.

(H교사 면담, 2020. 09. 10)

저희는 9월에 어린이집 평가제 일정이 나와서 6월부터 준비했는데 야근을 계속했어요. 일과 중에는 평가제 준비를 할 수 없었으니까 아이들 하원 후부터 시작인 거죠. 아이들 놀이 확장을 위해서 수업 준비물도 챙겨야하고 그 다음 수업준비도 해야 하니, 해야 할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또 반 별 특성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놀이 주제도 바뀌면 그에 맞는 환경구성도 해야 하니 정말 일이 끝이 없죠. 지금은 평가제 일정이 미루어져서 그나마 학급 업무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J교사 면담, 2020. 08. 31)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업무와 근무시간 이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원장의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주어진 휴게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업무 경감을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와 항목의 수를 감축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에 따라 교실 환경을 정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원장님이 오셔서 “여긴 위험하겠다. 이걸 뭐냐. 이걸 치워야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 없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져요. 물론 아이들을 고려한 지적이시겠지만 피드백을 주실 때는 정확한 내용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하면서 원장님이 다른 원장님한테 엄청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준비

해서 평가를 잘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또 새롭게 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거예요.

(C교사 면담, 2020. 08. 24)

어린이집 평가제를 앞두고 원장님이 다른 원에서 가지고 온 서식들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맞게 고쳐 봅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과 크게 다를 게 없고, 왜 바꿔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시간낭비처럼 느껴지고 업무를 더 과중하게 하는 부분 인거 같아요.

(A교사 면담, 2020. 07. 31)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데, 원장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알아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평가제와 관련하여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 주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D교사 면담, 2020. 08. 17)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함께 일하는 원장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원장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 받고 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기대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교직원간의 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교사 자신의 능력을 고취시키고 직무만족감을 통해 질 높은 보

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어린이집 평가제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며 현장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의 개선방안들을 요구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개정된 취지대로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보육교사의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고 어린이집 평가과정에서의 보육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영유아 및 놀이중심 보육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사례들을 토대로 한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자료 및 교사 연수가 지원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강화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평가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통해 새로운 평가지표를 이해하고, 지표내용을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도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과 운영방향의 개정 취지대로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이후의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단기간 이루어지는 현장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장기적인 평가과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요구하였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고 있는데, 경험해본 평가제도는 '유지 및 관리'보다는 '평가'에 따른 결과만을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평가제에서는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나누어 결과가 나오고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주기가 조정되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는 장기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평가결과를 등급제 보다는 '통과' 혹은 '미 통과' 로 알려주고 지표 영역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D교사 면담, 2020. 08. 17)

이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는 평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평가결과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원장님도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A받는 것이 목표라고만 하시지 평가제를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나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로 삼아보자고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개정된 평가제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에서 기대하는 내용들이 어린이집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I교사 면담, 2020. 08. 29)

평가제를 준비하고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가 원 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 또한 평가제를 통과한 믿을만한 안전한 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이 평가제가 끝나면 느슨해지기도 해 아쉬움을 느껴요. 평가결과가 점수에서 등급으로 바뀌었지만 평가제의 본 목표를 위해서는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G교사 면담, 2020. 09. 07)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이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A,B 등급, C,D 등급을 나누어 평가주기 조정관리 기간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후방문지원이 이루어진다. C,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A,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사후방문지원이 진행된다. 보육교사들은 제도의 안정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가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평가에 대한 결과만을 통보하기 보다는 평가지표 항목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몇 년 전, 평가인증을 받을 때에는 각 반마다 평가를 위한 대본을 준비했었어요.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평가로 점수가 책정되는 것이다 보니, 만점을 받기 위해 미리 연습했어요. 흥미영역별로 이루어져야하는 놀이와 인쇄물 환경, 대집단 활동시간의 교사 발문과 예상 답변들, 전이시간 시 해야 할 일 등, 미리 예상되는 상황을 준비하고 그 상황을 아이들과 계속 연습한 뒤 평가 당일에 그대로 실행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하루만 보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평가 당일만 잘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낮은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도 하루 동안의 어린이집 모습을 보고 평가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J교사 면담, 2020. 08. 31)

현장 평가 날에는 평가항목이 있어도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같은 문제 상황을 보고 교사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평가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당일의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하게 되니까 걱정도 돼요. 특히나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같은 부분이에요. 상호작용 할 때에도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어조나 대화시간도 다르게 하거든요. 한번에 말하기도 하고 여러 번 나눠서 말하기도 하고요. 받아드리지 않는 아이와는 달란 뒤에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도 좀 걸리는데 관찰자는 그 상황을 계속 보고 있을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야 할 것 같아요.

(D교사 면담, 2020. 08. 17)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의 양은 방대하고 해야 할 것들은 많은데 평가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루만 버티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루만의 평가가 아닌 어린이집 평가지표 영역들이 교사에게 익숙해져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하고 훈련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G교사 면담, 2020. 09. 07)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단기간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의 과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결과중심으로만 비춰지는 형식적인 국가사업으로만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추구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평

가체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평가제 지표 중 '안전' 영역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아들이 사용하는 의자 중 36개의 의자 모서리가 조금씩 뜯겨 나가거나 마모된 것을 알았어요. 의자의 용도 자체로는 사용가능하지만 평가지표에서 말하는 안전에서는 지적 받을 수 있기에 사무국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를 하니 그런 의자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의자를 교체하며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어요. 평가제를 받지 않았다면 펠트로 보완하면 충분히 사용했을 것 같은데 N(부정)평정의 대상이 될까봐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고 버려지는 모습을 보니 운영적일 부분에서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어요.

(H교사 면담, 2020. 09. 10)

어린이집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당 월에 활동자료 등이 풍족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그 전 달에 필요한 활동 소품과 자료들의 구입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평가인증 할 때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처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활동자료 구입이 여유롭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느껴졌어요.

(J교사 면담, 2020. 08. 31)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항목 중에 만0세도 끼적이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데, 영영아를 위한 놀이감은 친환경적 소재와 안전성을 고려하다보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영아들에게는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제공해주어야 하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는 한 달에 하나씩만 구비하자고 하시더라고

요. 때에 따라 제작하는 교구들도 있지만 완제품을 제공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항상 풍족하게 구입해서 제공해 주고 싶어요.

(F교사 면담, 2020. 08. 26)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및 물품 구입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만 편중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평가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정적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평가제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이처럼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만을 위해 어린이집의 재정지원이 쏠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보다는 어린이집 평가제 전과 후로 보육의 질적 수준이 양극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집 평가제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평가제에서 평가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육교사의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고 어린이집 평가과정에서의 보육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위한 서류가 간소화되고, 어린이집 현장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면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이

와 함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지표의 ‘교직원’영역에 대한 평가방식이 개선되기를 요구하였다.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평가지표 항목들을 줄이고 어린이집 서류를 간소화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류업무에 대한 감소를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작년부터 서류 간소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개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반영하다보면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가제를 위한 서류를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육일지 등을 평가할 때도 간단한 서식이 정해져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보육일지에는 보육활동 실행과정과 평가 정도만 간단하게 기입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D교사 면담, 2020. 07. 25)

이번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서류 양식이 없고 어린이집마다 자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다 보니 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양식으로 공시된 것과 예전 평가인증 서류 양식까지 함께 준비하는 상황도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확하게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주는 것이 더욱 좋은 방안 인 것 같아요.

(H교사 면담, 2020. 09. 10)

개정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보육일지 양식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간소화일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개정누리과정에서의 필요 요소하고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살펴보는 필요 요소 등을 검토하다보면 절대로 간소화가 되지 않아요. 아동의 개별 특성을 확인하고 놀이 내용에 따른 확장, 연계, 축소 활동도 기록해야 하고요. 차라리 문서서식에 필요한 필수 항목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각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J교사 면담, 2020. 08. 29)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류들로 인해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보육교사들은 간소화된 보육일지가 현장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보육일지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검토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소홀히 기록할 수 없다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평가지표 내용의 실행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날짜에 맞춰 정리하고 준비해야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평가 서류들이 통합되고 간소화되었다고 하여도 현장에서 느끼는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준비해야 할 서류 양식을 어린이집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히려 혼돈을 가져오고 업무를 과중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장 평가 시 이루어지는 교사 면담은 형식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예상되는 문제와 답이 정해져 있는 면담인 것 같아요. 그런 면담 말고 평가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며 느낀 것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질 높은 면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준비하며 변화하고 달라진 것들이 교사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교사 면담과정에서 진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면담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A교사 면담, 2020. 07. 31)

이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2차례 받아봤지만 관찰반도 경험하지 않았고, 교사 면담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각 학급마다 놀이, 환경 등이 모두 다른데 현장 평가 당일에, 영아반과 유아반에서 한 학급만 뽑아서 관찰하고 평가되는 게 과연 정확한 평가인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

님마다 보육 방식도 다른데 한 학급의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전체 어린이집 교사 모습으로 일반화시켜 평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현장 평가가 어린이집의 모든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각 학급별로 특성에 맞는 피드백과 놀이지원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I교사 면담, 2020. 08. 29)

의무적으로 바뀐 만큼 어린이집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평가제에서는 보육현장에 대한 의견들에는 궁금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평가만 하는 거 같아요. 개선된 보육실태와 보육교사를 위한 현장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평가제로 인한 보육의 질 개선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육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반영해주었으면 좋겠어요.

(E교사 면담, 2020. 08. 05)

평가제를 받는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은 후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평가를 하듯이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한 모든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를 비롯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B교사 면담, 2020. 08. 09)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현장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관찰 학급이나 교사 면담 대상을 전체 학급과 교사로 확장시키는 방안들을 이야기하며 어린이집 평가과정에 모든 보육교사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던 평가인증과 달리 ‘전체 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이 된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새롭게 개정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보육교사들의 현장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실현되기를 요구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중 하나인 ‘교직원 영역’에 대한 평가반영은 조심스럽지만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익명성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의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가 작업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졌고 형식적이고 거짓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평가내용과 현실에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해요.

(C교사 면담, 2020. 08. 24)

이번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아동중심과 참여권에 대해 보다 깊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사로의 인권과 참여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교직원 영역에 나와 있는 평가지표 항목들이 다 지켜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교직원 영역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 항목들 중에 경험한 부분들을 교사들이 사례로 적고 사례를 모아 원장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교직원 영역 평가는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F교사 면담, 2020. 08. 26)

평가 항목 중에 원장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교사들이 익명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서류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솔직한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자극이 있어야 원장님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J교사 면담, 2020. 08. 31)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교직원’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현장 평가에서 교사 면담할 때 어떻게 답해야 하는 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교직원 복지를 어떻게 신경써주고 있는지를 매일 매일 이야기하세요. 교직원 영역과 관련한 교사 면담 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이 아니라 보육 교사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H교사 면담, 2020. 09. 10)

위 사례에서처럼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보육교사들은 지표 영역의 한 부분인 ‘교직원영역’과 관련하여, 현장 평가과정에서의 교사 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교사 면담 내용이 진솔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익명을 통한 설문방법 등, 면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교직원영역’에 대한 N(부정)평정을 받지 않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또 다른 업무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교직원 영역’ 지표와 관련한 서류 준비가 보육교사의 몫이 되지 않도록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주체자인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과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한 보육교사의 직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3)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실천을 위한 교사역할 지원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됨으로써 교수 학습과정에 있어 획일화된 평가지침을 따르지 않고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놀이중심의 보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 실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사례 중심의 다양한 교사 연수가 지원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들은 놀이중심 보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사교육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수사례 중심의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지표교육을 요구하였다.

평가제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놀이에 관련한 교육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강의 사례들 중 '발레'를 주제로 한 내용이 있었어요. '발레'에 관심이 있는 아이를 위해 교사가 계획한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가 생길 수 있도록 먼저 '발레'와 관련한 동작, 복장, 음악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교수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어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들마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가 실행되고 학습적인 교육 효과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처럼 놀이중심 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이 준비된 놀이 환경의 지원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지원과 관련한 교육을 많이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J교사 면담, 2020. 08. 31)

평가제를 준비하며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교통기관을 주제로 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버스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버스를 탈 때 규칙은 무엇인지, 교실에서 버스 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 다양한 각도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교사의 생각을 확장하고 발문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을 통해 유아 중심으로 놀이가 실천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놀이과정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발문해야 하는 지를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A교사 면담, 2020. 07. 31)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교사교육 심화 과정으로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 과정에서 ‘비행기가 잘 날지 않아 흥미가 적어진 유아들’을 위한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가 안전과 관련한 요소들로 아이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위험하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안전이라는 틀이 교사의 사고의 틀을 협소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유아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사고의 틀도 넓혀지는 시간이었어요. 평가제가 끝나고도 계속해 교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D교사 면담, 2020. 08. 17)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대비하여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교육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교사교육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현장 적용과정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의 내용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진방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영아 보육과정 컨설팅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 때 어린이집에서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서 영아 보육과정 교육을 받았어요. 어린이집 사례들을 저의 상황에 비추어보면서 저희 교실의 환경이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중에서 상호작용과 보육환경 부분과 관련한 우수 사례 등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처럼 다양한 어린이집의 우수사례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자료가 보급되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F교사 면담, 2020. 08. 26)

이번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어린이집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발문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억에 남는 교육 자료 중 하나는 한글 연상 드로잉이었어요. 글자에 관심이 있는 유아들은 짧은 단어를 쓰기만 했는데 OHP의 빛을 활용하여 쓰기 활동이 확장되면서 유아들의 참여를 다양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인상이 깊었어요. 유아들이 쓴 글들이 빛을 통해 벽면에 보여 지고, 유아들의 그림과 글씨에 이야기를 붙여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확장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례였는데, 저도 유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가 느껴지는 활동이었어요.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놀이의 지원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B교사 면담, 2020. 08. 09)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통해 본인의 교실상황과 비교해보는 기회

를 갖게 되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익히고 스스로의 교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극이 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 만큼 다른 어린이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수한 현장 사례들을 통한 상호작용 교육이 지속되어지기를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교육방법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교육을 받으면서 평가지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사례들이었어요.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평가지표와 관련된 여러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 자료가 개발되고 보급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교육자료 내용이 구분되었으면 좋겠어요.

(G교사 면담, 2020. 09. 07)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서는 영아들의 흥미를 반영한 안전한 놀이를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는 현직 교사들의 비해 사례집 사진 속에는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좋은 교구로 즐겁게 놀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웠어요.

(F교사 면담, 2020. 08. 26)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연령별에 따른 영유아 놀이와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통해 여러 사례집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사례들을 통해 보육운영 시 직접 적용해보았던 것도 있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사례들을 통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 자료의 사례를 구성할 때 이벤트 성이 있는 활동 위주의 주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들을 선별하

여 각 원 사정에 맞게 변형하거나 확장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
아요.

(E교사 면담. 2020. 08. 05)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 지표에 대
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평가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평가제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자
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개정된 평가제를 설명하는 홈페이지와 교육
자료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설명과 Q&A를 통해 평가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자료 이외에도 각 지표영역별 사례, 평가제 진행 사례, 평가제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요구하였다. 또한 어린이
집은 유형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평가제를 통과 한 어린이집
의 유형에 따른 현장 사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을 실천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현장 사례들의 보급을 요구하였으며 개정 누리과정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사 연수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요구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이러한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교수학습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였다.

4)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현장평가 이전에 이루어
지는 어린이집 자체점검 기간 동안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조력기
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

로 인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해설서와 조력기관에서의 지원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력을 수월하게 받게 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번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아반 놀이 중심 컨설팅트를 받고 있어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는 반으로 들어와 놀이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때 아이들 중 한명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해 그 노래를 틀어주었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다른 영아들도 하던 놀이를 멈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신체표현을 했어요. 교사는 달라진 놀이의 흐름에 따라 주변 책상을 밀어주어 공간을 넓혀주고 놀잇감을 정리해주었죠. 놀이가 끝난 뒤에 피드백을 해 주셨는데 놀이가 대집단으로 이루어졌고 놀이의 흐름이 바뀔 때 '정리하고 다른 놀이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말하지 않아 아쉬웠다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한 평가지표 속 놀이중심에서는 영아들의 대집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긴 하지만 영아들이 관심을 보여 놀이에 참여한 것이었고 그 안에서도 분명 다른 놀이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또한 몰입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사의 지원도 하고요. 한 놀이를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에 대한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평가 기준도 다 다르니 컨설턴트가 해주신 평가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드리기가 어려웠어요.

(D교사 면담, 2020. 08 .17)

이번 평가제를 위해 평가제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반 별로 작성한 활동지를 보고 컨설턴트들이 피드백을 보내줘요. 그리고 화상회의(zoom)를 이용하여 놀이에 대한 설명도 듣고 있어요. 반 별 놀이 상황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해줘요. 예를 들어 놀이에서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는지, 수.조작영역에는 몇 개의 교구가 있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교구가 몇 개 이상이 필요한지 등,

이런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 되요. 개정누리과정에서는 놀잇감의 개수 보다는 놀이가 잘 이루어지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더니 평가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해 일단은 컨설턴트 말 듣고 교구 수를 더 채워 넣었는데 개정된 누리과정과 평가제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A교사 면담, 2020. 07. 31)

의무적인 평가제로 바뀐 만큼 현장관찰자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되고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채용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처럼 인식될 수 있게 자격증도 만들고 권한도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평가 결과를 더 잘 수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장관찰자들도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E교사 면담, 2020. 08. 05)

위 사례에서처럼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평가제와 관련된 컨설턴트를 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조력기관의 도움을 받아 컨설턴트를 진행하였지만 개정된 평가제 평가 지표와 개정 누리과정의 영유아·놀이중심에 대한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평가로 인해 보육활동 시 적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대비하며 원장님이 섭외한 사설 컨설턴트한테 개정된 평가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영아반 같은 경우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의견이 분분했어요. 결국 평가인증 사무국에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여 컨설턴트의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잘못된 정보 전달로 혼란이 생겨 컨설턴트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C교사 면담, 2020. 08. 24)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관찰일지를 살피는데 한 편의 관찰일지에는 일상생활, 놀이, 활동이 특정 활동이나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해 적용하고 있었어요. 관찰일지 작성을 하며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 평가인증 사무국에 전화를 하니 평가지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만 읽어주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B교사 면담, 2020. 08. 09)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흥미위주의 놀이를 실천하다보니 복도 까지도 놀이가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 확장으로 인한 놀이 공간이 달라지는데 교실에서 복도로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놀이에 대한 활동시간이 분절되게 평가받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평가 인증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평가지표의 한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만 참고해 원 운영에 맞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주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전화나 메일을 통해 문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전화 연결도 어렵고 형식적인 답변만 받아 답변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어요.

(J교사 면담, 2020. 08. 08)

위 사례에서처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해설서를 참고하여 준비할 때 조력 기관의 자문을 구해 답을 구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를 위한 조력은 컨설턴트를 주최하는 유아 종합 지원센터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설 컨설턴트 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조력하는 전문가들에 따라 지원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들을 받은 경우들이 많았고 명쾌한 답변을 얻는 대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사설 컨설턴트 강사들이 아닌 정부에서 관리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제로 시행되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하면서 평가인증 사무국에 전화하여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화 연결되는 것도 어려웠고 답변에 대해 만족도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H교사 면담, 2020. 09. 10)

평가인증 사무국에 전화연결 할 때마다 상담원들이 상담중이라고 하고 오래 기다려야해 불편했어요.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휴게시간일 때 잠깐인데 그 마저도 연결이 어려우니 힘들더라고요. Q&A 교육 자료로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하고 상담인원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어요.

(H교사 면담, 2020. 08. 28)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메일과 SNS를 통한 상담 문의 방법을 확대하였지만 문서로만 주고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무평가제로 바뀐 만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도 많을 테고 그 만큼 수용 가능한 상담인원도 확보하고 어린이집 평가에 숙달된 전문요원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어요.

(E교사 면담, 2020. 08. 05)

위 사례에서처럼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보육교사들은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사무국'으로 전화연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며 상담원을 통해 질의 과정을 겪으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걸려오는 전화연결로 인해 접근성이 쉽지 않아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한 상담요원들 및 조력자들의 수를 늘려 접근성이 강화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의무화된 평가제를 시행하는 만큼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조력자들과 전문가들의 인력확보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위한 자체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

첫째, 보육교사들은 새롭게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대비하며 정부주도의 평가제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마다 자체적으로 평가제 교육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가지표 이해를 위한 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소그룹 팀티칭이나 원내 장학 등, 교사들의 협력적 교육운영 방법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새롭게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보육교사들이 능동적인 노력과 함께 협업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이현미(2020)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의무제로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린이집 평가가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임정은, 2020),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가 준비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혜영, 2019).

이처럼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서는 평가지표영역 별 영상강의를 제공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지표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 필수조건으로 강화된 부분에 맞춰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유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실천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에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영유아 존중의 상호작용 방법을 몸에 익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영유아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류혜영, 2019).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권리존중을 실천해야 하며(이은경, 2019),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위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권리존중 보육 실천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이유미, 안지혜, 2014). 이에 본 연구 참여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육교사들이 인성적이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에게 있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에서 ‘보육과정과 상호작용’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김은정, 2020)처럼, 본 연구의 보육교사들도 평가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지침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권리존중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교사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누리과정 내용이 적용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경험하며 영유아의 놀이시간, 흥미영역 구성, 놀잇감 기준 등에서 평가인증제도에 비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내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 운영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보람과 교사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보육과정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조운주, 2020)처럼, 본 연구 참여 보육교사들도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적용하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비해 교사의 자율적인 보육운영이 가능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 방식을 실현해나가고 그 안에서의 놀이 가치를 경험하는 영유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의 특징을 경험하게 된다(한유진, 고진영, 김경철, 2019)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놀이중심으로 바뀐 개정 누리과정을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입하고 적용하는 실천과정에서 자신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역할의 효능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평가제 및 누리과정 모두가 개정된 시점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개정 누리과정의 목표에 맞춰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보육교사 교육과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준비하면서 담임 업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는 업무가 과중되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연장근무가 지속되었고 2018년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정책(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못하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과중된 업무로 인한 원장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준비하며 발생한 과중한 업무가 직무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일상 업무의 어려움을 겪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장에 대한 역할을 동반자가 아닌 지시자로 느끼게 된다(김영은, 2017)는 결과와 상통하는 내용으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남희정, 2012)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만큼 보육교사들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육교사의 역량은 보육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0).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교사교육과 교사 자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하며(최미례, 2020),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을

소진시키지 않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진은영, 이경화, 2020).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0)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육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린이집 평가제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들의 요구

첫째,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과 운영방향의 개정 취지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린이집 평가 이후의 사후관리강화 및 장기적인 평가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제 준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였다.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제도와 어린이집 평가제 사후관리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이루어지는 등급에 따른 사후방문지원이 아닌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평가 등급별로 평가주기가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으로 바뀌었으며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로 진행된다. A,B등급은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유지되며, 사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후 방문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C,D등급은 사후지원가가 방문하는 사후방문 지원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 평가제는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공보육 강화 및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이경아, 안옥민, 황영범, 이지효, 2019). 이처럼 어린이집

평가의 취지가 지속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의 사후관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평가제에서의 사후관리 대상이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준비가 어린이집 평가 당월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를 위하여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동안에는 충분한 교재교구가 제공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교재·교구 확보 등 환경 정비를 위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하영례, 고경필(2007), 황해익, 김남희, 정혜영(2013)의 연구 내용과도 상통한다. 이는 평가인증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의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평가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장 평가에서의 교사 면담에 대한 참여 기회도 확대되어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한 서류 간소화, 어린이집 평가의 '교직원 영역'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요구하였다.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기록 관련 확인기간을 정해 보육일지는 현

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확인하고 그 외 기록들은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의 서류를 확인한다. 하지만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을 위한 서류와 함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기록들도 출력물로 준비하여야 하므로 보육교사들의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서류로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영역들이 있어 문서(기록)작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진은영, 이경화, 2020)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서류 업무에 대한 부담은 감소되지 않는다(백진희, 2020)고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도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며 서류로 인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제 개정방향 중 하나인 '보육교사의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 경감'부분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기록(문서)확인보다는 관찰, 면담의 비율을 높이고 평가지표와 필수항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어린이집 평가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과정에 교사 면담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어린이집 평가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린이집 질적 개선이라는 평가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황해익, 김남희, 정혜영, 2013)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요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동료와 원장과의 관계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손영옥, 2020)는 점에서 이들과의 안정된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로에 대해 건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보육교사들도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인 의견이 어린이집 평가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러한 점에서 문서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획일적이고 의무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가 영유아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됨으로써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사례 중심의 다양한 교사 연수가 지원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 참여 보육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이 강조하는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 실천의 어려움을 느끼며 다양한 방식의 개정 누리과정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운주(2020)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이 나름대로 개정 누리과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롭게 적용되는 보육과정에 혼란스러움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역량에 따라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놀이지원의 격차와 놀이 지원의 유연성, 대처능력 등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이 필요(조운주, 2020)하고 지속적인 보육 현장과의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교사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김명하, 2020)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영유아·놀이중심을 수행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영유아·놀이중심 보육 실천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평가 이후에도 교사교육을 위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의 자체 점검을 위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조력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해설서의 내용과 조력기관에서의 지원내용 등이 다르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에 따라 지원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력자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들마다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도, 컨설팅 신청방법, 컨설턴트의 전문성 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전 보다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일한 정보와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이경아, 안옥민, 황영범, 이지효, 2019). 이처럼 개정된 평가제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평가제 조력기관 및 조력자들의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제 전후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연계된 장학지도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되고(김보현, 2017), 어린이집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지원 등 어린이집 맞춤형 오프라인 지원이 요구된다(강진실, 2020; 한지현, 한영숙, 2020)는 주장을 통해서도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능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육현장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충원하여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과정과 사후관리에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논의에 따라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과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를 앞두고 정부기관 주도의 어린이집 평가제 집합교육이나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평가제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었으며 소그룹 교사교육이나 원내 장학 등, 교사들의 협력적 교육방법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필수지표로 강조되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평가 지표에 관심을 갖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 역할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전반에 걸쳐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하며 그 과정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자율적인 보육운영을 통한 영유아·놀이중심 보육을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 역할의 효능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경험을 하며 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보육교사의 평가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강조하는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준비하며 보육교사의 상황을 되돌아보기도 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보

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과 운영방향의 개정 취지대로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평가를 기대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평가방식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과정에 보육교사의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고 보육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서류의 간소화, 현장평가에서의 교사 면담기회 확대, 평가지표의 ‘교직원’영역에서의 교사 익명성 보장 등, 평가방식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평가제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중심 보육과정 이해교육, 영유아 중심 상호작용에 대한 우수사례 중심의 교사교육,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평가지표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현장평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자체점검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조력기관에서의 지원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지원 요청 연결이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위한 조력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력을 수월하게 받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과정에 참여한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은 직장, 국공립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유형에 따른 평가제 준비의 차이가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평가제를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운영 방안 개선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지표에 있어 영아반, 유아반에서의 운영 내용 평가 차이를 고려하여 영아반, 유아반의 담임교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0년 9월, 4차 표준보육과정 시행됨에 따라 4차 표준보육과정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제 적용과정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4차 표준 보육과정과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제 경험에 대한 사례 연령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주연(2020). 보육교사의 업무불안과 역할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강진실(2020).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인식.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강혜정(2018).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와 운영체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숙(2020). 교사 협의를 통한 보육교사와 원장의 반성적 사고와 실천 변화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권윤미(2019).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행에 따른 교사 효능감 및 전문성 발달 차이.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하(2020). 「누리과정개정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와 한계. **유아교육연구**, 40(6), 345-367.
- 김보현(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장관찰자들의 평가 경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영은(2017). 평가인증이 유아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제3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설, 박창현, 황선영, 윤지연(2019). 2019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2020). 보육교사의 교사 전문성과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수행가능성과의 관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심은희, 이경화, 이연규, 장은주, 전선옥, 조순옥 조화연, 최일선(2010). **보육학개론**. 경기: 양서원.

- 김혜경(2018).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를 경험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혜민(2016).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혜은(2018).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통합지표와 운영체계에 대한 보육교원의 인식 및 실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남희정(2012).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류혜영(2019).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및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진희(2020).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지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3차 지표 시범사업용)**.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_____ (2018).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3차 통합지표용)**.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_____ (2019).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통합지표)**.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_____ (2020). 한국보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서영숙, 김경혜(2005). **영유아 보육론**. 서울: 양서원.
- 손영욱(2020).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 엄정윤(2019). 어린이집(3차통합지표) 평가인증사후유지관리에 대한 교직원
의 인식 및 요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안옥민, 황영범, 이지효(2019). 평가지표 비교를 통한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 실행 방안 모색.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집, 2019(2)** 157-168
- 이미정(2019). 어린이집 평가제의 적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언
이미화, 박원순, 염혜경(201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V): CARE 컨설팅 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수진(2019).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따른 어린이집 실외공간
구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개선방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원선(2019). 어린이집 평가제와 개정 누리과정.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
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2**, 80-95.
- 이유미, 안지혜(2014).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239-259.
- 이은경(2019). 교사의 유아권리인식이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유아권리존중 실행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김정미(2020).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3)**, 801-822.
- 이지연(2020).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20).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
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현미(2020).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어린이집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임정은(2020).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영, 윤은주(2020). Q 방법론을 활용한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주관성연구**, (-)52, 47-68.
- 정진희, 이대균(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실행에 따른 교사의 성장과정.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131-16
- 조운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초기의 유아교사 경험. **육아지원연구**, 15(3), 105-125.
- 진은영, 이경화(2020). 보육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어린이집 평가의 어려움: 질적 메타분석. **교육혁신연구**, 30(1), 261-287.
- 최미례(2020). 직장어린이집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관점에서 본 좋은 어린이집의 의미탐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최재경(2016). 어린이집 3차 평가인증에 대한 평가인증 컨설턴트와 보육교직원의 인식비교. 위덕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0), e-나라지표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www.index.go.kr> 에서 2020년 11월 11일 인출.
- 통계청(2020),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 에서 2020년 11월 11일 인출.
- 하영례(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준비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4), 25-47.
- 하영례, 고경필(2007).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는 교사의 ‘어려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0)51, 127-153.

- 한유진, 고진영, 김경철(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메타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947-969
- 한지현, 한영숙(2020).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지표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4)2, 105-127.
- 황혜익, 김남희, 정혜영(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현안 및 발전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461-490.

ABSTRACT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Childcare Teachers in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Na-Rae Choi.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in depth the experiences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and to analyze the needs of childcare teachers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expected to present a basic materials for understanding the detailed experiences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revised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and to promote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The research questions pos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urpose stated above,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experience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2. What are the needs of childcare teacher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From May 29 to September 10, 2020, the present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childcare teachers at a workplace daycare center and a national/public daycare center in Seoul, which were anticipating the operation of the revised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When selecting research participants, the study made selections in a way that evenly included teachers from infant and toddler classes in consideration of how the operating guidelines for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distinguished between infant and toddler classes. Each research participant underwent two interviews, which amounted to 20 interviews in total. In terms of research data, the study collected interview transcript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researcher note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For data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as repeatedly read, and the contents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so that the meaning of the data could be explor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underwent a diversified data collection proces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document collection, and the field notes of the researcher. The study also conducted member checking by research participants and a regular consultation process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iona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questions.

First, a look into the experience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shows that childcare teachers were participating in off-the-job training for the system under the instruction of government agencies in anticipation of participating in the system. Teachers were also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the system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daycare center. They were planning and practicing education methods for understanding the indicators in the evaluation system each according to their own way and were implementing cooperative education methods such as small-group teacher training or supervision within the daycare center. In addition, teachers were working hard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teacher's role of respecting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with an interest in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respecting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These were emphasized as essential indicators in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By practicing a method of childcare that respects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across their daily routine at the daycare center, teachers were having a rewarding experience in the process. Following the inclusion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into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childcare teachers were practicing infant and toddler/play-based childcare through the voluntary operation of childcare and were experiencing efficacy and a sense of being rewarded for their roles as teachers in the process. Furthermore, the overload of work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helped teachers realize that the treatment of

teachers and their working environment were not improving. In particular, they reflected on their circumstances while preparing for the revised daycare evaluation system as it emphasizes establishing conditions for reducing the burden of evaluation tasks for teachers,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s, and strengthening job competency.

Second, a look into the needs of childcare teacher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shows that teachers required a plan for sustaining the effects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the revised intent of the direction of operation. Toward these ends, teachers expected the strengthening of follow-up management after implementing the system and long-term sustained on-site evaluation. They demanded an evaluation method capable of reducing unnecessary financial burdens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system. Furthermore, teachers expected their realistic circumstances to be reflected into the evaluation process and also expected teachers to actively participate. Toward these ends, teachers demanded improvements to the evaluation methods, such as the simplification of evaluation documents, expanded interview opportunities during on-site evaluations, and the guarantee of anonymity in the 'teaching staff' portion of the evaluation index. In addition, teachers believed they required diverse methods of teacher training, which would be capable of putting into practice the infant and toddler/play-based childcare course of the Revised Nuri Curriculum because the daycare center evaluation system reflected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o

achieve this, teachers demanded training for understanding the play-based childcare course for teachers, teacher training based on the best practices with regard to infant and toddler-based interaction, and evaluation index training based on detailed examples. Furthermore, teachers pointed out inconsistencies in the application content and the difficulties involved with connecting application requests at assisting agencies operated at government agencies or local governing bodies as these items are for the self-inspection of daycare centers conducted prior to on-site evaluation. Consequently, the teachers stated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assisting agencies with regard to the self-inspection of day care centers and expected to receive smoother assistance.

